

##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과 민주적 가치 증진\*

이 선 미\*\*

본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유형과 민주적 기여도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가 내부적 조직화 및 운영방식을 통해 이들 가치 실현과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평가를 조사하되, 이 평가가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별로 과연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의 목적, 개인회원의 유무, 상근직원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비율, 연대체 회원 여부, 전체 수입에 대한 회비의 비율 등 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7개의 서로 다른 조직유형을 확인하였다. 민주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반응성이라는 특정한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조직유형은 다른 조직유형에 비해 더 기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활동이나 조직운영에서 일반시민을 직접 대면하는가의 여부가 이들 조직유형별 의견 차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 민주적 가치, 사회적 반응성

\* 이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서울여자대학교

## 1. 서론

시민사회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하나는 규범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섹터론적 접근이다. 규범적 접근에서 보면, 시민사회는 규범적으로 특정한 가치와 규범의 실현을 위한 영역(sphere)으로 정의되며,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화된다. 섹터론적 접근은 시민사회를 국가 섹터와 시장 섹터에 대비되는 목적과 활동방식을 가진 단체들의 합으로 정의한다. 섹터론적 접근에서는 ‘시민사회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규범적 접근에서의 시민단체 규정보다 좀 더 다양한 단체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에서의 차이는 연구방법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규범적 접근에서는 국가 및 시장에 대항하여 시민사회가 전체 사회에서 어떤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해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섹터론적 접근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모와 질적 특성, 무엇보다도 조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이 두 접근의 이분법이 점차 약화되면서, 상호 접근하고 있는 현상이 주목된다. 섹터론적 접근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특정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시민사회단체의 외부 활동과 조직 내적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전체에 특정 가치를 확산시키는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규범적 접근에서도 시민사회가 실현하는 가치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이때조차도 시민단체의 조직은 권력투쟁을 위한 자원동원의 하부구조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섹터론적 접근과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상호접근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시민사회 연구에 있어서의 두 가지 흐름, 즉 시민사회단

체의 조직적 측면과 시민사회의 가치적 측면을 연계하려고 하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일환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특성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 증진에 대한 평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섹터론적 접근에서 정의한 보다 포괄적인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섹터론적 접근에서 주장하듯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그 존재만으로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증진에 기여한다는 가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단체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와 규범을 어느 정도 확산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시민사회가 실제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확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는 규범적 접근에서 강조하듯, 전체 사회에 어떤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는 시민사회의 가치적 차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규범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대외 활동뿐 아니라, 단체의 내부적 조직화 및 운영방식을 통해서도 시민사회의 가치증진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폭력, 민주적 의사결정, 반부패, 관용 등의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내부적 조직화’ 및 ‘운영방식’을 통해 이들 가치 실현과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평가를 조사하되, 이 평가가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별로 과연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별로 시민사회가 실현 및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규범이 다를 것이며, 따라서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도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에 따라, 시민사회의 반응성, 즉 현재 그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관심사안에 대

해 어느 정도 빠르게 반응하여 대처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민주주의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사회의 핵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 역시도 민주적 가치 확산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확산되었던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규범적 접근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시민사회는 억압적인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착한’ 시민사회로 규범화되었고, 이 시민사회라는 영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하는 단체만이 시민단체로 규정되었다. 섹터론적 관점에서 정의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90년대 말, 「한국민간단체총람」이 발간되면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민사회단체 정의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단체목적뿐 아니라 활동형태, 상근인력규모, 재정규모 등과 같은 조직적 특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기 시작되었다. 더불어 이론적으로도 소위 공익적 권익주장운동을 하는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정상호 2003; 주성수 2006), 이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을 연구할 때조차, 규범적 접근에서의 연구전통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즉, 대상도 시민운동조직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직을 사회운동을 위한 자원의 하나로 보면서, 이

를 자원동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염형철 2001).

시민사회단체의 조직 연구의 또 다른 흐름은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연구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민병로(2007)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및 공익활동을 원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건, 무엇보다도 자금,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체유형을 구분할 때, 민중단체,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보수적 시민사회단체, 봉사 및 기능적 단체라고 하여, 조직특성에 따른 구분보다는, 규범적 접근에서 흔히 하던 활동의 정치적 성격에 따른 구분을 따르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조직론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예로 김영화(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영화는 한국교육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구조, 시민의 참여도, 단체 간 연계 및 네트워크, 재정기반 등과 같은 조직적 특성을 조사했을 뿐 아니라, 단체의 정체성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조직 및 운영 진단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이와 유사한 조직분석이 수행된 것은 주로 학위논문에서였는데, 장상미(2004)는 조직론적 관점과 규범적 접근에서의 연구전통을 결합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직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성우(2001)는 시민단체를 조직효과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 있는 연구 중 하나는 시민단체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에 나타난 성불평등 현황을 연구한 한정자와 함인희(2004)의 연구이다. 여기서는 여성주의적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특성과 조직문화가 연구되었다. 저자들은 기존의 시민사

회조직 연구가 성중립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조직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합리적 효율성 등 조직구성 원칙도 사회적, 역사적 국면에서” 특정한 가치의 -여기에서는 성별화된- 실천의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정한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협의회, 여성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74개 단체를 선정하여, 이 단체의 상근직원과 회원 923명의 설문사례를 실시,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평가가 상근직원→일반회원→자원활동가 순으로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 상근직원은 일반회원 및 자원활동가보다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을 연구할 때도 결국 특정한 ‘가치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조직의 특성 연구가 전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 특히 내부 구성원의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매우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유형을 구분하되, 규범적 전통에서 하듯 대외활동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그 조직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조직론적 접근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한정자와 함인희 연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적 가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조직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시민단체를 엄격하게 민주주의 규범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명백

히 “시민적인 것”들에 제한하려고 하는 규범적 입장(Harbeson, Rothchild and Chazan 1994)과는 달리, 토크빌(Tocqueville)이나 ‘시민문화’(The Civic Culture)로 유명한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전통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나, 공익을 위한 단체 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단체나 상호이익(mutual benefit) 단체도 시민사회에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는 이러한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외활동이나 내적 조직원리의 민주적 성격과는 상관없이, 시민들이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갖게 되는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제3섹터 이론가인 샬러먼과 안하이어(Salamon and Anheier 1997) 역시 ICNP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의 분류에서 제3섹터의 경계에 포함되는 단체의 기본 조건만을 언급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단체를 시민사회단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기본 조건이란, 조직화되어 있을 것, 비정부적일 것, 비영리적일 것, 자치적일 것, 자원적일 것 등이 전부이다.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문화와 여가생활, 교육과 연구활동,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자선활동의 매개,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등 매우 많은 단체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자본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자본론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내적으로 수평적인 면대면 접촉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민적 덕성을 학습하게 하고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외부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된다. 전통적인 토크빌주의자와 다른 점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특정한 조직적 특성을 가진 단체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점이다. 즉, 토크빌 전통에서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그 존재만으로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반면, 사회자본론에서는 목적이나 회원

모집 면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소규모 단체가 그렇지 않은 조직적 특성을 가진 단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은 참여자들에게 면대면 접촉과 수평적 관계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Putnam 2000; Offe and Fuchs 2002).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규범적 관점의 몇몇 논자들의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예컨대, 하이든(Hyden 1997)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조직의 내적 특성이나 운영방식, 예컨대 결정능력, 리더의 선출, 경제적 행정적 자원의 통제 등에 있어서 민주적, 수평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만이 시민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직이나 운영방식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참여하는 단체구성원들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자본론자들과 규범적 관점의 시민사회론자들과의 차이점 또한 명확하다. 예컨대 하이든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 확산에서 찾으려 했던 반면, 사회자본론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끈(bond) 역할을 시민사회에게 기대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을 그 존재만으로 긍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그 조직적 특성과 운영방식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유형들은 연구자가 시민사회에 기대하는 특정한 역할 혹은 규범적 가치에 따라 더 긍정적 혹은 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자가 이 연구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유형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가치는 비폭력, 민주적 의사결정, 반부패, 관용 등의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반응성이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역할은 사회 전체적으로 추구되는 민주주의라는 규범을 다양한 옹호활동과 감시 및 견제라는 ‘대의 활동’을 통해 확산시킬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조직화 및 운영방식을 민

주화'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다 이러한 민주적 가치에 노출되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적 규범이 확산되도록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조직의 민주적 운영은 조직의 원래 목표 외에도 그 조직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의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CIVICUS CSI(Civil Society Index Project)의 일환으로 2009년에 실시된 시민사회단체 조직 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가와 시장 밖의 이른바 '제3섹터' 내의 모든 단체들을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로 명명하면서, 이들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조직에 대한 질문과 시민적 가치 및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표집단위는 시민사회단체였고, 각 단체에 속한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먼저 자신의 단체의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설문을 하였고, 다음으로 전체 시민사회의 역할 및 기여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대상인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100개로서, CIVICUS의 표준화된 국제조사에 포함된 단체유형 19개 중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유형 3개를 제외한 16개를 대상으로 고르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이 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 중, 조직유형구분에 사용된 질문 중 무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제외한 94개의 사례를 최종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조직유형구분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적 가치 및 사회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표 1〉 조사대상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농어민단체 또는 협동조합	8	8.0	보건단체/사회복지협회(장애인 협회 등)	9	9.0
전문협회(의사, 교사 등)	3	3.0	스포츠 협회	2	2.0
노동조합	6	6.0	청소년 단체	4	4.0
지역자치/마을위원회	3	3.0	여성단체	6	6.0
종교 또는 심신수련 스포츠 단체	6	6.0	NGO/시민단체/인권단체(로타리 클럽, 적십자가, 엠네스티 등)	30	30.0
문화단체 또는 협회(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6	6.0	환경단체	10	10.0
공제회, 신용 또는 저축 단체	2	2.0	취미조직(우표수집클럽 등)	2	2.0
교육단체(학부모-교사 협회, 학교위원회)	2	2.0	기타	1	1.0

먼저, 조직유형구분을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사용되었다.

(1) 위에서 나열된 바와 같은 단체목적에 따른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되,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NGO, 환경단체 등의 4개 유형을 공공이익조직(public benefit organization)으로, 나머지 유형들을 상호이익조직(mutual benefit organization)으로 재범주화 하였다.<sup>1)</sup> 공공이익 혹은 상호이익이라는 목적은 조직의 활동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조직의 운영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다음으로는 (2) 개인회원이 있는지 없는지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개인회원이 있다는 것은 회원이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sup>1)</sup> 단체목적에 따른 구분을 이 두개의 범주로 재범주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직유형구분을 위한 5개의 변수 중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조직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비율도 조직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직원 중심의 단체와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단체는 각각 서로 다른 조직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스미스(Smith 2000, 89)는 시민사회단체를 풀뿌리 결사체와 상근직원 기반의 자원조직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풀뿌리 결사체는 회원이익 중심적이고 높은 정도의 내부 민주성을 가지고, 대개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상근직원 기반의 단체는 대개 비회원적, 공익적 이익 중심적이고, 낮은 정도의 내부 민주성과 공식적인 집단이라고 양분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회원 중심이라도 공익 중심적이면서 자원봉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으며, 협회 등의 예에서 보듯 상호이익 중심이라도 상근직원 중심의 공식적 단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회원 유무라는 변수와는 별도로, 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비율을 또 다른 변수로 설정하여 조직유형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였다. (4) 연맹, 협회, 연대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또 다른 지표이다. 연맹이나 협회, 연대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보다 표준화된 조직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마지막으로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중을 사용하였다. 재정 자원의 출처는 회비 외에, 정부, 국내기업 지원금, 외국기부금, 개인기부금, 이용수수료/판매비용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회비가 높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에 의해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정부나 기업, 개인 기부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조직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질문들: 조직유형구분

변수	내용
단체유형	0=공공이익조직, 1=상호이익조직
개인회원유무	0=개인회원 없음 1=개인회원 있음
자원봉사자의 비율	0=직원만 1=봉사자의 비율 2배미만, 3=봉사자의 비율 2배 이상, 4=자원봉사만 & 직원과 자원봉사 둘다 없는 경우
연맹, 협회, 연대조직 소속 유무	0=소속안됨, 1=소속되어 있음
수입 중 회비의 비중	0%=0, 0.1~9.9=1, 10~19.9=2, ... 80~89.9=9, 90~100=10

두 번째, 민주적 가치의 확산 및 사회적 관심사안에의 반응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사용되었다. 앞의 네 가지 질문은 시민사회조직이 직접 시민적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시민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뒤의 두 가지는 시민사회가 최근의 주요 사회적 관심사안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이 두 가지 사안은 CIVICUS CSI 프로젝트의 자문위원들에 의해 선정되었다. 자문위원에 의해 선정된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사안은 양극화해소와 경제위기극복이었다. 뒤의 두 질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표 3〉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 확산 및 사회적 반응성에 대한 평가

	질문	
조직내부운영을 통한 민주적 가치 실현	시민사회 내부에 자신들의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0=아니오, 1=예
	시민사회의 부정부패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0=매우 빈번함, 1=빈번한 편, 2=가끔있음, 3=거의 없음

	시민사회 내부에서 명백하게 인종차별적, 성차별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한 세력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0=많은 사례, 1=일부사례, 3=하나 또는 두 개 사례, 4=전혀 없음
	시민사회는 조직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0=미약한 역할, 1=제한적 역할, 2=보통의 역할, 3=상당한 역할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반응성	양극화 해소	0=전혀 없음, 1=매우 제한적 영향력, 2=일부 구체적 영향력, 3=높은 수준의 영향력
	경제위기 극복	0=전혀 없음, 1=매우 제한적 영향력, 2=일부 구체적 영향력, 3=높은 수준의 영향력

###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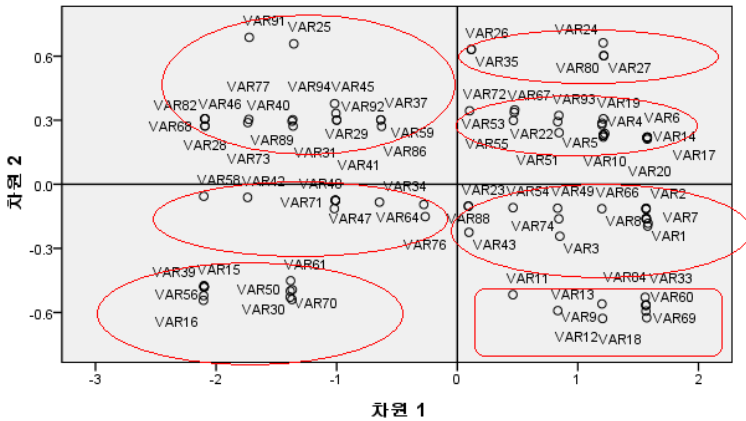
#### 1)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유형 구분

통계적으로 조직특성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유형화하기 위해, 먼저 의미 있는 차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단체유형, 개인회원유무, 자원봉사자의 비율, 연맹, 협회, 연대조직 소속유무, 수입 중 회비의 비중 등의 5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었다(<그림 1> 참조). 단체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sup>2)</sup>, X축은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율로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회비의 비중이 작은 단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축은 직원 대 자원봉사자의 비율로서, 아래로 갈수록 직원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봉사자들의 참여가 많아 양극단은 전적으로 직원 혹은

<sup>2)</sup> 원칙적으로, 도표 상의 각 노드에는 조사대상이 되었던 개별 시민사회단체명이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윤리상 시민사회단체명을 그대로 노출하는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번호로만 표시하였다.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 바란다.

봉사자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단체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5가지 변수 중, 시민사회단체의 유형화를 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된 변수는 전체수업 중 회비의 비율과 직원대 자원봉사자의 비율, 2가지였다.

**<그림 1> 다차원척도법(MDS) 분석결과**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



주 : 1) 사례=94  
2) Stress= .04495, RSQ= .99548

<그림1>에서 빨간 표시는 가까운 거리에 서로 몰려 있는 단체들을 묶어 놓은 것이다. 해당되는 각 사례 단체들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좌측 위에서부터, 1~3유형, 우측 위에서부터 4~7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각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다차원척도법에 사용된 각 변인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4>). 결과적으로 연대조직의 회원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hi^2$ 의 유의도가 조직목적, 봉사원/직원 비율의 경우 각각 .000(<.001)이었고, 개인회원 유무

의 경우는 0.44(<.05)였다.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율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퍼센트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여, 시민사회조직 유형별 평균을 내어보니 <표5>와 같았다.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 평균차 검증은 어려웠으나, 보는 바와 같이, <그림1>의 좌측에 있는 1,2,3 유형의 경우는 회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반대로 우측에 있는 4,5,6,7 유형은 회비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직특성 변인들과 시민사회조직 유형의 교차분석**

		조직목적		봉사원/직원 비율				개인회원 유무		연대조직의 회원 여부	
		공익	상호 이익	직원만	2미만	2이상	봉사원만	없음	있음	아니오	예
1	빈도	14	6	0	1	17	2	1	19	5	15
	%	70.0	30.0	.0	5.0	85.0	10.0	5.0	95.0	25.0	75.0
2	빈도	10	1	2	9	0	0	0	11	2	9
	%	90.9	9.1	18.2	81.8	.0	.0	.0	100.0	18.2	81.8
3	빈도	1	9	10	0	0	0	2	8	2	8
	%	10.0	90.0	100.0	.0	.0	.0	20.0	80.0	20.0	80.0
4	빈도	1	4	0	0	0	5	0	5	1	4
	%	20.0	80.0	.0	.0	.0	100.0	.0	100.0	20.0	80.0
5	빈도	9	12	0	0	21	0	1	20	5	16
	%	42.9	57.1	.0	.0	100.0	.0	4.8	95.2	23.8	76.2
6	빈도	11	6	0	17	0	0	3	14	2	15
	%	64.7	35.3	.0	100.0	.0	.0	17.6	82.4	11.8	88.2
7	빈도	0	10	10	0	0	0	4	6	6	4
	%	.0	100.0	100.0	.0	.0	.0	40.0	60.0	60.0	40.0
합계	빈도	46	48	22	27	38	7	11	83	23	71
	%	48.9	51.1	23.4	28.7	40.4	7.4%	11.7	88.3	24.5	75.5
$\chi^2$ (유의확률)		30.634(.000)		235.525(.000)				12.967(.044)		8.721(.190)	

첫째, 좌측 위쪽에 있는 1,2는 목적으로 보면 모두 공익단체들이고 개인회원이 있는 단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 둘 간의 차이는 상근직원에 대한 봉사원의 비중에 있었는데, 1유형의 경우, 2유형에 비해 직원에 대한 봉사자의 비중이 높은 단체들이 많았다.

둘째, 좌측 하단에 있는 3유형과 우측 하단에 있는 7유형은 상호이익단체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좌측 3유형의 경우, 7유형에 비해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연대조직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의 비중도 현저히 높았다.

셋째, 우측 상단에 있는 5유형과 6유형은 개인회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과 많은 경우 연대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직원에 대한 봉사원의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5유형의 경우는 봉사원의 비중이 6유형에 비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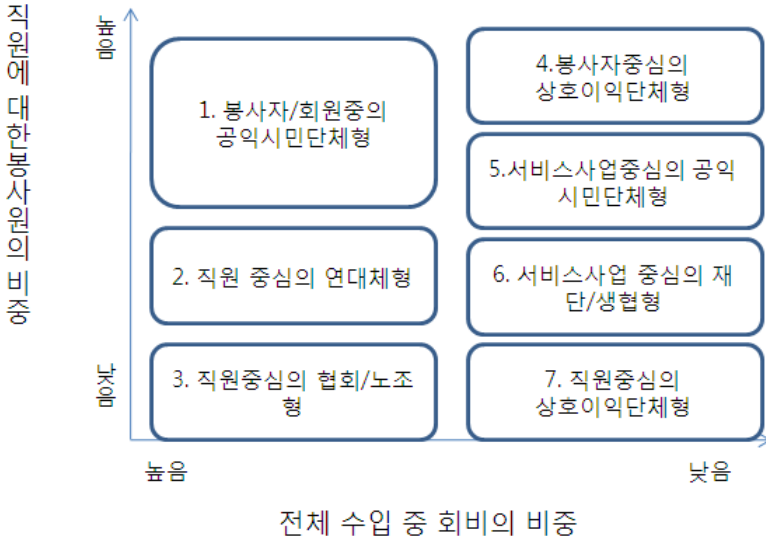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4유형은 단체의 성격상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묶인 유일한 유형으로서, 해당사례도 5개밖에 되지 않고 내적으로도 통일성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분석에서는 의미 있게 다루지 않았다.

**〈표 5〉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중 (%)**

	N	평균	표준오차편차
1	20	72.2750	15.52373
2	11	65.0455	16.46495
3	10	91.6000	13.43462
4	5	13.6600	14.98092
5	21	7.7571	9.07296
6	17	9.4824	12.22826
7	10	3.0880	6.79023
합계	94	37.2370	36.31779

결론적으로, 위의 다차원분석을 통한 차원 발견과 교차분석 결과 및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단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구분을 얻었다(<그림2>).

〈그림 2〉 조직특성별 시민사회단체의 유형화



다음 절에서는 이들 단체유형별로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위 유형별 구분에 따라,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시민사회단체가 단체 내의 조직운영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적 가치의 확산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 2)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 확산에 대한 의견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적 가치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내 폭력사용 단체의 유무에 대한 의견, 시민사회 내 부패 사례의 정도, 명백히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단체의 정도에 대한 의견이 사용되었다.

〈표 6〉 시민적 가치 실현에의 기여

		폭력사용 단체 유무		시민사회 내 부패의 사례의 정도				명백히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단체의 정도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의 민주성 증진을 위한 역할			
		없다	있다	매우 빈번	빈번	가끔	드물다	많음	있는 편	한두 사례	없음	의미 없음	제한적	다소 의미 있음	의미 있음
1	빈도	8	10	0	0	12	6	4	9	5	2	2	2	8	8
	%	44.4	55.6	.0	.0	66.7	33.3	20.0	45.0	25.0	10.0	10.0	10.0	40.0	40.0
2	빈도	7	4	0	0	4	7	0	6	1	1	0	2	4	5
	%	63.6	36.4	.0	.0	36.4	63.6	.0	75.0	12.5	12.5	.0	18.2	36.4	45.5
3	빈도	4	6	0	3	4	3	1	6	2	1	1	2	4	2
	%	40.0	60.0	.0	30.0	40.0	30.0	10.0	60.0	20.0	10.0	11.1	22.2	44.4	22.2
4	빈도	2	3	1	0	4	0	2	1	2	0	1	1	3	0
	%	40.0	60.0	20.0	.0	80.0	.0	40.0	20.0	40.0	.0	20.0	20.0	60.0	.0
5	빈도	15	6	0	5	6	10	1	10	7	3	2	1	13	5
	%	71.4	28.6	.0	23.8	28.6	47.6	4.8	47.6	33.3	14.3	9.5	4.8	61.9	23.8
6	빈도	8	9	0	2	7	8	0	10	3	2	2	1	6	8
	%	47.1	52.9	.0	11.8	41.2	47.1	.0	66.7	20.0	13.3	11.8	5.9	35.3	47.1
7	빈도	6	4	1	0	2	5	0	3	2	0	0	2	4	3
	%	60.0	40.0	12.5	.0	25.0	62.5	.0	60.0	40.0	.0	.0	22.2	44.4	33.3
합계	빈도	50	42	2	10	39	39	8	45	22	9	8	11	42	31
	%	54.3	45.7	2.2	11.1	43.3	43.3	9.5	53.6	26.2	10.7	8.7	12.0	45.7	33.7
$\chi^2$ (유의확률)		5.301 (.506)		30.074 (.012)				16.639 (.548)				12.913 (.797)			

먼저 단체유형별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의견을 보면, 시민사회 내 폭력사용 단체의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가 54.3%, ‘있다’가 45.7%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부패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8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명백히 성/인종 차별적인 단체의 정도에 대해서는 ‘있는 편’ 혹은 ‘많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1%로 ‘한두 사례’ 혹은 ‘없음’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의 민주성 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의미있음’과 ‘의미있음’이 전체 응답자의 79.4%로서, 의미가 제한적이거나 없다고 평가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시민사회 내 부패의 사례 정도에 대해서만 7개의 시민사회단체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유의확률= .012). 1, 2 유형, 즉 <봉사자/회원중심의 공익시민단체>와 <직원중심의 연대체형>에 속해 있는 응답자에 있어서는 ‘가끔’이거나 ‘드물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였다. 그러나 3유형, 즉 <직원중심의 협회/노조>에 속해 있는 응답자와 5,6형 즉 <서비스 사업중심의 공익시민단체>, <서비스사업 중심의 재단/생협형>에 속해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시민사회 내 부패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0%, 24%, 12%로서, 다른 유형 소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 확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시민사회 내 폭력사용 단체의 유무나 명백히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별 의견차를 보이지 않았다.

### 3) 사회적 반응성에 대한 의견

한국사회의 최근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성은 양극화해소와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표 7> 사회적 핵심관심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양극화 해소				경제위기극복			
		영향력 없음	매우 제한적	다소제한 되는 영향력	매우 높은 영향력	영향력 없음	매우 제한적	다소제한 되는 영향력	매우 높은 영향력
1	빈도	0	8	7	4	0	16	2	1
	%	.0	42.1	36.8	21.1	.0	84.2	10.5	5.3
2	빈도	0	7	4	0	1	8	2	0
	%	.0	63.6	36.4	.0	9.1	72.7	18.2	.0
3	빈도	0	8	2	0	2	8	0	0
	%	.0	80.0	20.0	.0	20.0	80.0	.0	.0
4	빈도	1	3	1	0	2	3	0	0
	%	20.0	60.0	20.0	.0	40.0	60.0	.0	.0
5	빈도	0	7	14	0	2	10	9	0
	%	.0	33.3	66.7	.0	9.5	47.6	42.9	.0
6	빈도	0	9	7	0	0	13	2	1
	%	.0	56.3	43.8	.0	.0	81.3	12.5	6.3
7	빈도	1	4	4	0	2	3	3	0
	%	11.1	44.4	44.4	.0	25.0	37.5	37.5	.0
합계	빈도	2	46	39	4	9	61	18	2
	%	2.2	50.5	42.9	4.4	10.0	67.8	20.0	2.2
$\chi^2$ (유의확률)		36.042( .007)				28.858 ( .050)			

유형별 구분과 상관없이,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양극화해소와 경제위기극복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반응성은 위에서 다룬 민주적 가치증진에서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5유형, 즉 <봉사자/회원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에 속한 응답자 중에서 “매우 높은 영향력”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다.

<표6>과 <표7>에서  $\chi^2$  검증을 통해 유형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각 유형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해 평균을 내어보았다. 그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표 8〉 평균

	양극화 해소에의 영향력 <sup>1)</sup>			경제위기극복에의 영향력 <sup>2)</sup>			시민사회 내 부패 경향 <sup>3)</sup>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1	1.79	.787	19	1.21	.535	19	2.33	.485	18
2	1.36	.505	11	1.09	.539	11	2.64	.505	11
3	1.20	.422	10	.80	.422	10	2.00	.816	10
4	1.00	.707	5	.60	.548	5	1.60	.894	5
5	1.67	.483	21	1.33	.658	21	2.24	.831	21
6	1.44	.512	16	1.25	.577	16	2.35	.702	17
7	1.33	.707	9	1.13	.835	8	2.38	1.061	8
전체	1.49	.621	91	1.14	.610	90	2.28	.750	90

주

- 1) 0~3척도. 수치가 높을수록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
- 2) 0~3척도.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위기극복에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
- 3) 0~3척도. 수치가 높을수록 시민사회 내 부패 사례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유형에서 경제위기극복보다는 양극화해소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1유형, 즉 <봉사자/회원 중심의 공익시민단체>에서, 경제위기극복에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양극화해소에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에 시민사회가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은 단체유형은 1유형, 즉 <봉사자/회원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이었고, 그 다음으로 5유형, 즉 <서비스사업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이었다. 다음이 6유형, 즉 <서비스사업 중심의 재단/생협형>, 2유형 <직원 중심의 연대체형>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봉사자나 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여 활동하는 공익시민단체들이 양극화 해소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직원 중심의 조직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를 보면, 바로 위의 질문과는 달리, 5유형과 6유형, 즉 <서비스사업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과 <서비스사업 중심의 재단/생협형>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양극화해소에서 시민사회의 기여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봉사자/회원 중심의 공익시민사회단체>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도 평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회비보다는 다른 재원으로 비영리 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부패 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자. 이때 숫자가 높을수록 시민사회 내에 부패의 사례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평균 2점을 넘어, 비교적 시민사회 내 부패의 사례가 드물다고 평가했다. 유형별 차이를 보자면, 2유형인 <직원 중심의 연대체형>이 시민사회 내 부패 정도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3유형과 4유형, 즉 <직원중심의 협회/노조형>와 <회원/봉사자 중심의 상호이익단체형>가 이 시민사회 내 부패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앞서 다른 두 질문을 같이 고려하여 보면, 3,4 유형은 상대적으로 양극화해소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부패 정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 4유형 간에는 어떠한 공통된 조직 특징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공익적 시민단체 중에서도, 서비스사업 중심의 5,6 유형이나 봉사자/회원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에 비해, 2

유형인 <직원중심의 연대체형>이 부패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의 기여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직원중심의 연대체형>에서 시민사회의 내부의 민주성이나 부패 문제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사업이나 봉사자/회원 등을 통해 직접 시민을 대면하는 시민단체의 경우는 자신들의 활동이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직접적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화해소나 경제위기극복에 시민사회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단체를, 조직의 목적, 개인회원의 유무, 상근직원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비율, 연대체 회원 여부, 전체 수입에 대한 회비의 비율 등, 조직적 특성을 측정하는 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7개의 서로 다른 조직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들 조직유형 구분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즉 조직유형 자체로는 어떤 조직유형이 더 훌륭하거나,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의 다양성을 강조하되, 활동의 정치적 성격이나 분야에서의 다양성뿐 아니라, 조직유형에서의 다양성도 존재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차원척도법과 다섯 가지 변수별 교차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유형을 구분하는 데 두 가지 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전체 수입에 대한 회비의 비율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근직원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비율이었다. 이 두개의 축을 확인한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체들을 하나의 조직유형으로 구분한 결

과, <1. 봉사자/회원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 <2. 직원중심의 연대체형>, <3. 직원 중심의 협회/노조형>, <4. 봉사자/회원 중심의 상호이익단체형>, <5. 서비스사업 중심의 공익시민단체형>, <6. 서비스사업 중심의 생협/재단형>, 마지막으로 <7. 직원 중심의 상호이익단체형>이 발견되었다.

이들 조직유형별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내적 조직화와 운영방식을 통해 사회 전체에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핵심적인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내적 조직화와 운영방식을 통해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반부패와 비폭력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조직 내 민주주의라는 가치 확산에도 비교적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종 차별철폐의 가치실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다. 한편, 양극화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현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성에 있어서는 가치실현을 통한 기여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조직유형별로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기여에 대한 의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가치실현 중에서는 반부패였고, 반응성에 있어서는 양극화해소와 경제위기극복, 두 가지 모두였다. 먼저, 반부패와 관련해서 요약하면, 2유형인 <직원 중심의 연대체형>이 시민사회 내 부패 정도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3유형과 4유형, 즉 <직원중심의 협회/노조형>와 <회원/봉사자 중심의 상호이익단체형>가 이 시민사회 내 부패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

었다. 다음으로, 양극화해소에 대한 반응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봉사자나 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여 활동하는 공익 시민단체들(1유형과 5유형)이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직원 중심의 조직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반응성을 보면, 회비보다는 다른 재원으로 비영리 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6유형).

시민사회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활동이나 조직화방식에 따라 선형적으로 특정 단체유형이 더 훌륭하다거나 덜 훌륭하다고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그러나 토크빌 전통에서 주장하듯,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그 존재만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주장 역시 경험적 증거가 없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주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반응성이라는 특정한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조직유형은 다른 조직유형에 비해 더 기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활동이나 조직운영에서 일반시민을 직접 대면하는가의 여부가 이들 조직유형별 의견 차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즉 민주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반응성이라는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단체가 활동이나 조직운영에 있어 일반 시민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변수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성을 평가할 때, 그들이 외적으로 주창하는 주의 주장, 무엇보다 정치적 주의 주장에만 주목하던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의 주장에서 민주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조직유형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의 민주적 기여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향후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5가지 변수 외에도 보다 정교화된 조직특성 변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반응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의 관점에서 이들 변수들 중 어떤 변수들이 결정적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될 경우, 한 단체가 특정한 가치를 조직의 목적으로 표방할 경우, 어떤 조직운동을 해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 4월 13일 접수, 2010년 5월 10일 채택)

#### 참고문헌

- 정상호. 2003. “시민사회 연구의 과제: 공익적 시민운동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60.
- 주성수. 2006. “한국 시민사회의 ‘권익주창적’ 특성: CIVICUS 시민사회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5). 233-250.
- 민병로. 2007.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법학논총』. 27(2). 215-235.
- 윤태범. 2001.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지방정부연구』. 5(1). 71-92.
- 김영화. 2006. “한국교육시민단체의 조직 및 운영진단.” 『교육사회학연구』. 16(3).
- 한정자, 함인희. 2004. “시민단체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에 나타난 성불평등 현황 연구.”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논집』. 13. 79-107.
- 김혁래. 2005.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한상. 2008.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008. 책세상.
- 장상미. 2004. 『시민단체 조직분석: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성우. 2001. 『시민단체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염형철. 2001. 『청주지역 시민운동조직 연구』.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Anheier and Salamon. 2003. "The Nonprofit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W.W. Powell and R. Steinberg (eds.)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hen, Jean and Arato, Andrew. 1992. *Political Theory and Civil Society*. Cambridge,  
MA: MIT Press.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8-248
- Eastis, Carla M. 1998. "Organizational Diversity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66-77.
- Edwards and Foley, and Diani (eds.). 2001.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Fried, Amy. 2002.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Alexis de Tocqueville in Putnam's  
Analysis of Social Capital." in Scott L. McLean, David A. Schultz and Manfred B.  
Steger (eds.)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on Community and 'Bowling Alon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1-49.
- Harbeson, J. and D. Rothchild and N. Chazan (eds.). 1994.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n Africa*.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
- Hyden, Goran. 1997. "Civil Society,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Dissection of a

- Complex Discours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2(1). 3-30.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Offe, Claus and Susanne Fuchs. 2002. “A Decline of Social Capital?” in Robert D. Putnam (ed.). *Democracies in Flu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89-243.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87.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Salamon, L. and Anheier, H. 1996. *The Emerging Nonprofit Sector*.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mith, David Horton. 2000. *Grassroots Associ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 Warren, Mark E. (ed.). *Democracy &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ganizational Type of CSOs and Promotion of Democratic Values

*Seon-Mi Lee*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type of CSOs and promotion of democratic values. The author focuses o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organizational type, while examining the assessment on the role of CSOs for promoting democratic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CSOs differentiate into 7 organizational types. It also reveals that a organizational type is more conducive to promotion of democratic values tha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variables of citizen involvement were decisive in differences of assessment according to organizational type.

Key words: civil society organization, organization type, democratic values, social responsiveness

